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죠” 나주시-서울금천구, 먹거리 상생



코로나19 여파 맞은 나주시 농·축산 농가 돕기 친환경 삼겹살·농산물 꾸러미 500여세트 주문

나주시와 서울시 금천구가 농산물 먹거리를 매개로 도농 간 상생의 꽃을 활짝 피워내고 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주(16일) 금천구 공직자,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농산물&삼겹살 꾸러미' 506세트를 배송했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 배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지역 농·축산 농가를 위한 금천구의 도움의 손길로 마련됐다. 꾸러미는 친환경 무항생제 삼겹살(600g)과 양송이버섯, 상추, 미나리, 대파채, 고추, 마늘 등 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 배송은 신종

25% 저렴한 가격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생산농가와 구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았다.

도농 먹거리 상생을 꾀하고 있는 양 지자체의 인연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협약 체결이 계기가 됐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전국 최대 식재료 소비지역인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기초자치단체를 1:1로 매칭해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나주시는 금천구 관내 어린이집에 125개소(올해 기준)에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산지 농산물

을 공급하고 있다.

금천구는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며 농산물 꾸러미 787개를 구입하는 등 개학 연기 여파로 공공급식이 중단돼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금천구와의 먹거리 교류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도농 상생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금천구 공공급식에 공급하는데 힘써주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23일까지 신청·접수

총 10대까지 보급...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계획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보급량은 10대이며, 20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의 유형·규모, 성능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 내 생산제품(대풍,

Echo-ev)을 구매할 경우에는 도비 48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구매 시에는 2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화순군에 등록된 법인·기업 등이다.

구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이륜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후 판매점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군에 신청하게 된다.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장비 현장시연회 개최

전문 컨설턴트 참여해 장단점 설명하고 직접 시연



곡성군이 지난 15일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에서 농작업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장비 전시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

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반 농업 지원사업과 다르다.

농작업 안전 전문 컨설턴트는 농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해 안전효과가 큰 장비를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농가는 컨설턴트의 지도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다.

15일 시연회에는 이슬머넌텔론공회 15농가가 참여했다. 장비 공급 업체는 전동운반차, 컨베이어, 농업용 분무기, 농작업 안전 보조구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직접 시연을 실시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는 장비사용의 안전성과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일련의 작업과정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번기철 농작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시연회를 통해 작목별 적합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군, 농업경영체 자립역량 강화로 농업 경쟁력 높인다

군 농업기술센터, 2021년 강소농 지원사업 ‘호응’

담양군은 경영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소농(強小農) 경영개선실천교육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강소농 지원사업은 농가경영 개선 실천 교육 및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 및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 작지만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영농 초기단계 귀농인 및 기존 강소농 교육 이수자 중 보수교육을 원하는 신규 및 기존강소농 20명을

모집했으며, 지난달 15일에 첫 교육이 시작됐다.

지난 19일에는 농장 브랜드 만들기 및 판촉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기초과정 수료 이후에는 사업 계획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추이가 안정되면 다시 대면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강소농 교육을 통



해 우리군 강소농의 역량이 한층 발전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며 “향후 마케팅 및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담양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공중보건의로사 신규배치 및 직무교육 실시

구례병원·구례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배치 완료

구례군은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신규 및 전입 공중보건의를 각 근무지에 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9일 직무교육에서 공중보건의사로서의 기본의무와 공중보

건의사로써 준수해야 할 복무지침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5명(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성형외과 1명, 일반의 2명, 한의사 1명) 중 소아과청소년과 전문의 1명은 구례병원, 나머지 4

명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2024년 4월까지 복무하게 된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은 의료 취약 지역인 만큼 공중보건의사 역할이 매우 크며,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건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